



제1회 교회다운 교회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 일시 | 2004년 9월 5, 12일(주일) 오후 2시 30분, 19일(주일) 2시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5층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히 여기를 밝히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8)

한국독립교회와성경연구회



예인교회

- 발행인/총 서기 목사 ◦ 대외협력사역/총 영수 집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29-1 세터프라자 607호

◦ 328-0692 ◦ www.yein.org



예인교회

홈페이지: www.yein.org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9-1 세터프라자 607호 TEL/039328-0692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 세미나는 교회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예인 가족과 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개혁을
꿈꾸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그동안 뿌린 눈물이
양분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금번 세미나를 영수 있도록

공동주최를 아뢰해주신 교회개혁실천연대(www.protest12002.org)와
후원해주신 뉴스앤조이(www.newsjoy.co.kr)에 감사드립니다.



제1회 교회다운 교회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 일시 | 2004년 9월 5, 12일(주일)오후 2시 30분, 19일(주일) 2시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5층

1 9.5 (주일 오후 2시30분)

설계도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2 9.12 (주일 오후 2시30분)

영성 깊은 교회 다니고 싶다

박득훈 목사(언덕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3 9.19 (주일 오후 2시)

말 통하는 교회 다니고 싶다

박영근 교수(빙송인, 이담재 대표, 전 한세대 교수)

4 9.19 (주일 오후 4시30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회

구교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전 문 패

9.5 (주일 오후 2시30분)

- ◇ 찬양인도 / 하경석 형제 | 반주 / 이은미 지매
- ◇ 대표기도 / 구본형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총장)
- ◇ 강 의 / 오세택 목사
(두레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 제 목 / 설계도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
- ◇ 질의, 응답 및 기도회 / 정성규 목사

설계도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 건강한 교회상 -

오 세 택 (ohset@chollan.net)
두 레 교 회 담임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I. 시작하는 말

II. 교회의 본질

1. 교회의 정의

1) 교회개념에 대한 혼동

2) 교회에 관한 경험적 정의

3) 교회사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델들

가. 제도로서의 교회(Church as Institution)

나. 교제와 관계로서의 교회(Church as communion and fellowship
〈Outside of Structural Church〉)

다. 성례로서의 교회(Church as Sacrament)

라. 사자로서의 교회(Church as Herald)

마. 종으로서의 교회(Church as servant)

2. 교회에 관한 어휘 정리

3. 교회의 성경적 정의

1) 하나님의 백성

2) 그리스도의 몸

3) 성령의 전

4) 새 예루살렘(새 하늘과 새 땅)

III. 교회의 속성

1. 하나 됨을 지향한다.

첫째, 한몸 사상, 지체사상을 가지심시오(롬12:4-5, 고전12:12-13)

둘째,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셋째, 섬김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엡4:11-12)

넷째, 친구와 적을 물리쳐야 한다.(눅19:1-10)

다섯째, 우선, 집중해야 한다.

여섯째, 용서의 법을 활용해야 한다.(골3:12-15)

일곱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 드려야 한다(골3:12-15)

여덟째,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라(엡4:1-16)

아홉째,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한다(롬12:1-2)

알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어야 한다(행2:47)

열한 번째, 기장을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라(갈5:13-15)

열두 번째,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시켜 준귀를 잃지 않
도록 하라(엡4:1)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엡1:3-14)

3. 말씀선포(엡1:15-19)

4. 만물을 충만케 함(엡1:20-23)

5.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냄(엡2:1-7)

6. 선한 일을 행함(2:10)

7.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 펼쳐야 한다(롬12:1-2)

*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교(세계관 비교)

구 분	인 간	역 사	죽 음	윤 리	직 업	인여 가치
자연중심 세계관	자연의 피조물	윤회, 無始無終	윤 회	상황윤리	생계수단	축 적
인간(기술) 중심세계관	절대자(실존) 적 존재	지속적 발전	존재의 상실	상황윤리	창의적 욕구실현, 봉사 생계	축 적
하나님 중심 세계관	신의 피조물, 죄인	처분(終)	심 판	절대윤리	창의적 욕구, 사회봉사	니혼 은사

7. 기록성이다.

8. 보편성이다.

9. 전투하는 교회

10.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는 것이다.

IV. 결론

“우리가 영광스런 교회의 승리를 갖기 위해서는 계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계시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식은 어떠한 결실도 낼 수 없고 다만 계시만이 결실을 낸다는 것이다. 계시를 갖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자!”

다·보·재

9.12 (주일 오후 2시30분)

- ◇ 찬양인도 / 하경석 형제 | 반주 / 이은미 자매
- ◇ 대표기도 / 황영수 집사
(예인교회 대외협력 사역자)
- ◇ 강 의 / 박득훈 목사
(언덕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 제 목 / **영성 깊은 교회 다니고 싶다**
- ◇ 질의, 응답 및 기도회 / 정성규 목사

영성 깊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

- 복음적 영성 -

박 득 훈 (weak52@kornet.net)

언덕 교회 담임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뉴스앤조이 편집인

1. 머리말

한국교회가 부패의 질곡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복음적 영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민주적 정권의 확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교회체정의 투명하고 균형 잡힌 운영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영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제도개혁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왜곡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부패현상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복음적 영성의 상실이 지리 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왜곡된 영성이 암세포가 되어 교회전체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부패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실하고 실천적인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종교적인 형식 즉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경묵상에 많은 시간을 드리면 내면의 진정성이나 그 밖의 다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간에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교회공동체 전체를 속게 만들어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썩기 시작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세기톨릭교회의 잘못된 영성을 청산하고 복음에 기반을 둔 영성을 회복하

는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적 영성은 몸과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가지 없는 것으로 보며 영과 영적인 것은 선하고 가지 있는 것으로 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론적 영성은 세상에서의 일상적 삶에 무관심하고 좁은 의미의 종교 생활에만 몰두합니다.

반면 복음적 영성은 바울지신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게 된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믿음과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이 온전하게 결합되는 총체적인 삶 지체를 의미합니다. 복음적 영성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삶이요 둘째는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삽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복음적 영성을 잘 요약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1.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삶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절정이 바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서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여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빌 1:20-23)

지금 바울은 감옥에 집혀 있습니다. 복음전파에 있어서 그와 경쟁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을 괴롭힐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순수했는

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가 전해지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아 그리스도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죽어 주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영성의 순수성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은 소위 기복 신앙적 요소입니다. 아거스틴은 "이용하다(utere/uti)" 는 말과 "향유하다(enjoy/frui)" 는 말을 구분하였습니다. 무엇을 즐긴다는 것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무엇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좀더 중요하고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아거스틴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서 「신의 도성」 에서 자주 이용의 대상인 세상의 재화를 향유하고 향유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돈의 사용(utere)을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향유하고자 원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려는 것은 오용(perversion)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 한다" (J. Philip Wogamar Christian Ethics (London, SPCK, 1994). 임성빈 옮김, 「기독교윤리학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P. 110.) 이것이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 다양한 축복을 주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축복추구가 표면적인 고백과는 상관없이 실제로적으로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질적 목표를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겠다는 두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이 오늘날 영성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나아가 교회를 부패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복 빌어주는 일종의 사면으로 전락되고 목사와의 도들 사이에 거래가 형성됩니다. 목사는 성도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면 그 과정과 연 정의로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묻지 않습니다. 성공한 성도가 가액의 현금, 하면 그 출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 축복 받은 사람으로 추켜 세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잘 따르고 떠 받혀줍니다. 이런 분위기에 장로로 임직하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드리는 관행이 자스롭게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교회 안에 진리와 정의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맴몬이 권을 휘두르게 됨으로써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기복신앙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가르쳐 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PDF판을 보면 고후 8:9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가난과 성도의 부유함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 부유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부요를 누리며 살아야 하며, 받은바 축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삶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 않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선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생활비 전부인 두 뽀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고후 8:9의 맥락은 정 반대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독려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부요케 하기 위해 가난해지는 은혜에 동참하자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고후 8:1-9).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성을 지닌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신양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부처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기에 얽매어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하나님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 전력을 쏟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부의 창출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부를 멸시하는 금욕주의자여서기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마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봉부에 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치할 줄도 압니다(빌 4:12).

이 점에서 요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위 신정부론(新政府論)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신정부론(新政府論)의 대표적 주지는 김동호, 『깨끗한 부자』(서울: 규장, 2001)이다. 신정부론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을 보려면 최근에 출판된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서울: IVF, 2003)를 참조하라.) 신정부론은 물질적 성공을 축복으로보다는 일종의 은사로 봅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성공해서는 안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공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확실히 떼어나야 합니다. 부자와 힘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는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부는 자유롭게 즐겨도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깨끗한 부자로서 모든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을 권유합니다.(김동호, 『깨끗한 부자』, 195 쪽)

신 정부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기존의 기복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결론을 보면 그 차이가 무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될 것이다.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부자와 권력자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전심으로 바란다.(상계서, 204 쪽, 책의 마지막 결론임)

기존의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을 축복 받은 사람이라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중종 돈을 바는 과정이 윤리적이야 하고 돈을 번 다음에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삶과 교회현장에서 철저하게 그러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속기 매우 쉬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세훈 교수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의 시뮬에서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깨끗하고 떼떽한 내 몫의 "부(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보는 이미 "넓은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저의 집으로 바뀐 것에 대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이익과 물질적 번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복신앙을 회개하고 순수한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교회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팔 적할 만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적은 바로 맘몬(재물)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마 6:24). 경제학자 허경화는 '신은 죽었다. 그러나 돈의 신, 맘몬은 예외이다. 우리를 현대인에게 그는 유일하게 현재(現在)하는 신이다. 우리들은... 맘몬의 영광을 이 땅에 제한하는 거룩한 맘몬의 성도(聖徒)'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허경화, 「세로운 밀레니엄은 없다」 (서울, 오름, 1999), p. 360.) 비록 경제학자의 글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맘몬의 위험성을 가슴깊이 새겨 기복신앙을 회개하고 이런 믿음이 교회강단과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바울의 메시지가 힘차게 외쳐져야 합니다(행 14:22).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의 마지막 조항은 486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나도 실감나게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따라서 기지뎈 평화의 보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2.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삶

복음적 영성의 두 번째 측면은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온데간데 없어진 영성은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사회참여를 생략한다면 이 역시 반쪽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쪽 영성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次善)이듯이 진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나리한 거짓이 아니라 그럴듯한 반쪽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의 개관신인이었던 테나슨도 '할머니'라는 시에서 반쪽 진실의 위험성을 간결하게 읊었습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가장 시커먼 거짓말/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즉각적으로 대항하여 싸우기가 쉬운 법/ 그러나 일부분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가 어렵다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개혁하려면 반쪽 영성을 회개하고 이웃사랑의 실천과 사회참여를 회복함으로써 온전한 영성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극복하려면 구약의 축복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신 28:1-4). 그러나 그 축복도 자 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기만한 사람이 없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신 15:1-18; 행 4:31-37).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진 행되었던 구약시대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변영을 도모하는 기복신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물질적 번영마저 구속역사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도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적 영향력과 교육의 결과로 그 후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창 18:18-19). 구약에서도 결코 성공과 번영이 믿음의 최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욕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에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련을 하리하셨습니까? 사단에게 욕의 믿음이 기복신앙이나 변영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임을 입증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욥 1:6-12).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나 번영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단 3:1-30). 이렇게 구약에서조차도 개인의 이기적인 축복추구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기복신앙과 변영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무속적인 전통과 군부독재시절의 경제성장제일주의가 기독교 믿음을 안으로 스며들여와 오염시킨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과 번영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교회가 대체로 쉽게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물질들 동시에 증돌 없이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이고 즐거운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에는 진정한 십자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교회내의 생활에 대한 충실성이 이를 대신 할 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본회파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1) 이웃사랑의 실천

영성의 온전성을 회복하려면 우선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실천적 삶을 요구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마 28:20).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복음은 듣고 실천적 삶으로 체화되어야 믿음은 그 온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만큼(신 6:4-5)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레 19:18).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가지로 간결하게 요약하신 것입니다(마 22: 37-40). 또한 산상수훈에서는 이웃사랑이 구약전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마 7:12).

믿음과 실천 사이에 자리매김을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석적인 이해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를 그렇게 강조한 바울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고 천명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의 삶이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윤리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롬 13:10). 놀라운 것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새롭게 회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루터도 그의 95개 조항 반박문중 43조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시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더구나 45조항에서는 심지어 "이웃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본체만체 하면서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회의 면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까지 말하면서 사랑이 담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진실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천을 증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의 의로워짐 즉 구원은 궁극적으로 믿음에 의해 판가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R.C. Sproul, *The Heart of Reformed Theology* (London, Hodder & Stoughton, 1997), p. 69.)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자하는 행함입니다(약 2:14-26). 갈벤펀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행함은 의로움을 전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816 (3.17.12).) 즉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가면과 같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였던 '오직 믿음' (*sola fide*)이라는 표현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도 믿음을 인간의 공로로서의 행위와 강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믿음의 당연한 열매로서의 행위를 배제시키지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Sproul, *ibid.*, p. 70. 한편 이신칭의의 의미와 믿음과 실천의 바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위해서는 임태수, 『제2종교개혁을 지향하는 민중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p. 215-252를 참조하라.)

더 나아가 행위가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할 때 믿기만 하면 윤리적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점은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밝힌 다음에는 반드시 동일한 열정으로 실천적인 삶에 대해 자세히 권면한 것에서 입증됩니다. 믿고 의로워진 성도들이라고 해도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이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경우 이신칭의라는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실천이 결여된 믿음을 너무나 쉽게 용인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삶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천이 결여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왔고 그런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연히 도덕성을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상이 추락된 교회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아들 중에는 이와 정반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6월 17일에 곡선회 목사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목회자 수련회에서 '목회자 영성의 위기'와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강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목회자가 탈진하기 시작한 것은 복음과 은혜대신 윤리 즉 인권, 가난, 사회, 정치, 생태계 등의 이야기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즉 빈민 속에 들어가는 삶, 병자를 일생 돌보는 것,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그리스도(The Christ)를 전하는 대신에 마치 "한 그리스도(a Christ)를 본받아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야하느냐를 강조하는 것, 즉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윤리를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목사는 그러한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윤리 자체를 폄하하고 복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기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에 기반을 둔 실천적 삶을 회복하는데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반쪽 믿음에 도취되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무기력하게 만듭시다(삼상 4:1-11).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사 1:10-17; 미 6:6-8).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해주고 있습니다(렘 22:16).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17:3).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못 알아 본 사람이고 결국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마 25:31-46). 복음이 요구하는 실천적인 삶을 실현함으로써 믿음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2) 사회참여

영성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이가 믿음이 요구하는 사회참여의 사명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천적 삶을 좀더 심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마 28:20). 사회참여의 당위성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할 때 우리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 취사선택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온전한 복음이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 뿐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을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회참여를 모두 요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진보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이원화되는 현상이 있어왔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해방신학과 민중 신학의 흐름을 받아드려 개인적인 중생과 회심을 강조하는 복음전도를 소홀히 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민중해방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하면 복음주의 진영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속의 진리를 강조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던 반면에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을 복음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구체나 봉사활동으로 미미하게 표현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깊이 성찰하면 할수록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해는 반쪽 진리임을 곧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의 사회참여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를 정치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정치인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 래 다녀도 사회구조의 다양한 모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배울 수도 없으려니와 어

면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문제들을 외면한 채 개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기껏해야 기존체제에 잘 적응하는 성실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한국교회는 사회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이 요구합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를 잘못 오도하는 관점은 교회는 정치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정(正)교(敎) 분리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가 정치경제구조에 대하여 무관심해 온 것을 정당화해온 셈입니다. 물론 화랑개혁신학의 영역주권이론에서 잘 밝혀진 것처럼 정치경제와 종교를 혼동하여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경제는 인간의 물질적·사회적 삶의 차원을 다루고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개인적 삶의 차원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비기독교적 발상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1985), 양성만 옮김 「창조타락구속」 (서울: NP, 1992/2000).) 창조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는 인간에게 부여된 소위 문화사명이라는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인류의 정치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창 1:26-28). 타락이야기는 이 질서와 사명이 여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도 유효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노아에게 문화 창조의 명령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가인의 후예들이 만 들어 간 문화와 바벨탑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타락한 인간은 문화 창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만족과 영광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구속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건이 인간을 문화 창조의 영역에서 해방시켜서 물질세계와는 무관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한 가운데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요 17:15).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18).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 이라고 부르면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마 5:13-16). 그리스도인에게는 타락한 세상의 한 복판으로 보내서 비뚤어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A. 카이퍼(Kuyper)가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세계관은 인간의 전(全) 실존(實存)이 신(神) 의식(意識)에 젖을 것을 요구합니다.(아브라함 카이퍼 지음, 김기찬 역,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68쪽.) 즉 인간의 모든 삶의 분야에 믿음이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치경제구조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경제구조의 문제도 기독교인의 깊은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쉐이퍼가 잘 지적한 것처럼 정·교 분리의 원칙은 결코 교회 를 정치경제문제와 관련시켜서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 5, Book 4, 'A Christian Manifesto' (Wechsler, Crossway Books, 1982), pp. 433-436.) 교회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시화(privatization)를 주장하는 소위 근대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둘째, 개혁신학이 주요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 기초가 잡힌 개혁신학의 중심에는 만인 제사장론과 소명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명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을 통해 세상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이웃의 구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분명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부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놀랍게도 공적(civil authority)은 '인간의 생애를 통틀어서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명예로운 것' 이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문화명령(창 1:26-28)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까이 손에 대를 문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J. Stott의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Basingstoke, Marshalls Paperbacks, 1984), pp. 15-250에 의존했지만 각 내용은 대부분 필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하시는(justifying) 하나님은 곧 정의(justice 혹은 righteousness)의 하나님 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통치의 핵심도 정의입니다(사 11:1-5).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 구성원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관계의 핵심적 내용은 *기난한 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렘 5: 28-29; '... 기난한 자들의 권리(히브리어로 *mispaq*)를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시혜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정치경제 구조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난한 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법을 제정함으로써 분명히 하셨습니다(신 24:10-22). 이러한 사상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딤후 3:16).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기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목숨을 걸만큼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했으며(갈 2:10; 행 20: 22-24; 21: 13; 24: 17; 롬 15: 26)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dikaiosisynē*, 고후 9:9)임을 밝히셨습니다. 다만 바울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원리적 차원에서보다는 그 당시의 교회의 입지와 정치적 형편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해야 합니다. 눅 4: 18, 19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취임사를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사역이 기난한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세상의 억압구조에서 해방시키는 정치·경제적인 일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도전함으로써 백성을 탈취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억압과 탈취 구조의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마 21: 13).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정의(*dikaiosisynē*)를 추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마 5: 13-16; 6: 33). 여기서 '세상의 빛' 이 된다는 것은 세

상의 정치·경제체제를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개혁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명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들도(막 12:16,7; 요 18:36)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교 분리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쉐이퍼가 잘 지적했듯이 모든 시민정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므로 만일 그 법을 어기면 그의 몫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민은 불복종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p. 468.) 또한 '내에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는 말씀도 자세히 보면 주님의 나라는 정치경제 영역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영혼의 구원에만 적용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크가 잘 간파했듯이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모두 포괄하지만 세상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U. Andrew Kirk, *A New World Coming: A Fresh Look at the Gospel for Today* (Basingstoke, Marshalls Morgan & Scott, 1983, pp. 53, 54.)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이(of the world)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안에(in the world) 있어야 합니다(요 17:15, 16, 18).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부정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하여 변혁을 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스토트는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했습니다. (Stott, *Issues*, p. 24. 스토트는 Alec R. Vidler, *Essays in Liberty* (London, SCM, 1957), pp. 95-112에서 인용함)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어느 정도 제도화된 교회는 사회참여에 무관심한 듯이 보여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교회의 발목을 정치적 무관심 속에 붙들어 매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 비롯된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리처드 롱게네커는 바울이 비록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는 사상을 제시함으로써(렘 6:5-9) 그 목표를 향해 출발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급진적인 사회사상은 적절한 토양과 환경 위에 뿌려져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된 씨알과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Richard Longenecker, *New Testament Social Ethics for Today* (Grands Rapids, Eerdmans, 1984), pp. 51-69.)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롬 13: 1-7의 말씀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흔히 이 말씀은 모든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결국 교회의 정치적 관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그나마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교회와 구분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현실로 다가 오는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답은 그 정치공동체를 떠나서 분리된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권세에 순종할 때 양심에 따라 하라는 말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5). 웨이퍼가 말 한데로 롬 13: 1-7에서 추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자정에 이르게 되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다'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p. 469, 참조: 양낙홍, 『개혁신주의 사회윤리와 한국장로교회』 (서울, 개혁주의 신학회, 1994), 212-218쪽.) 이렇게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입증해주는 신학적 근거는 매우 단단합니다.

사회참여의 마지막 당위성은 현실인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정치 문제에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을 때도 우리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침묵은 곧 현 구조에 대한 지지로 이용될 수밖에 없고 그 구조는 나와 다른 시민들의 윤리적 판단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회참여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느냐입니다. 더구나 불의한 사회구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는 중대한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 나도 자연스러운 당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구약이 요구하는 정의를 현재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유익하다는 점입니다(삼후 3:16-17).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가슴깊이 새기고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점이 한국교회 개혁에 중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맺음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끊임없이 유혹 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는 복음적 영성을 상실한 채 여러 가지 중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교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 으려면 복음적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순수한 영성 즉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 하는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영성 즉 이웃을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음과 이 웃사랑의 실천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전도, 사회봉사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제도와 구조를 변혁해 나가는 사회참 여가 서로 입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이루려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늘 읽는 것이나 예배시간에 설교시간이 강조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능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끊임없는 개혁에 정진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9.19 (주일 오후 2시30분)

- ◇ 찬양인도 / 하경석 형제 | 반주 / 이은미 자매
- ◇ 대표기도 / 이한철 장로 (예인교회)
- ◇ 강 의 / 박영근 교수
(아담재 대표, 전 한세대 교수)
- ◇ 제 목 / 말 통하는 교회 다니고 싶다
- ◇ 질의, 응답 /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 ◇ 한국교회개학을 위한 기도회 / 구본형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총장)
- ◇ 교 제 / 다함께

말 통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박영근 (eagleeyes73@hanmail.net)

아 답 재 대 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1.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말씀인 셈이다. 현재 우리의 교회는 주인이신 말씀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광장인지 혹은 곳곳이 막혀 있는 밀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십자가의 두 막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수평적인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은 부질없는 일이다. 둘이 함께 하지 않는 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2. 광장과 밀실

2002년 6월 월드컵의 감격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광장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광장과 밀실의 대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건강도를 점검해보자.

- | | | | |
|----------------------------|---|---|---|
| 1) 볼볼 뭉친 우리 vs. 보기도 싫은 너희 | 0 | 1 | 3 |
| 2) 안에서는 볼 vs. 밖에서는 물 | 0 | 1 | 3 |
| 3) 밀실의 풍요 vs. 광장의 가난 | 0 | 1 | 3 |
| 4) 황홀한 중심 vs. 속터지는 주변 | 0 | 1 | 3 |
| 5) 영원한 키워드 vs. 한번 쓰는 패스워드 | 0 | 1 | 3 |
| 6) 뒤편한 일엔 과일 vs. 성가신 일엔 회피 | 0 | 1 | 3 |
| 7) 탄탄한 약함 vs. 허술한 강함 | 0 | 1 | 3 |

8) 의견의 부동화(不動化)

9) 커뮤니케이션 비용 증가

10) 영원한 초보

11) 신뢰의 감소, 혹은 실종

0	—	1	—	3	—
0	—	1	—	3	—
0	—	1	—	3	—
0	—	1	—	3	—

3. 새 시대의 화두 두 가지

Inter : 본체만이 문제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

cf. international, intercultural, interface, interne

Personal : 정보화 시대의 mega-trend cf. PC

Inter + PERSONAL = Interpersonal (개인적인/ 인간적인 vs. impersonal)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드웨어는 어느 때보다 많지만.....

* 요10장에 나타나 예수님의 지역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 33: 11)

4. 커뮤니케이션이란?

- 1)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action) - 불링
"지극과 반응이다" (interaction) - 탁구
"영적인 자식을 키우는 일이다" (transaction) - 제스처 게임

2) 언어적인 (verbal) & 비언어적인(nonverbal)

3) 내용(Contents) & 관계(Relationship)

4) 디지털(Digital) & 아날로그(Analogue)

人
人間人
人間人
人間人
人間人
人

cf. 크리스토퍼의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cf. 나눔(獨立)-나눔(交際)-나눔(共有)

5. 인간적 커뮤니케이션 대 비인간적 커뮤니케이션

* 상대를 보는 시각: 인간 - 사물

1) 유일한(unique) --- 대체가 가능한(interchangeable)

2) 측정할 수 없는(unmeasurable) --- 측정할 수 있는(measurable)

3) 선택의 능력이 있는(choice-making) --- 반사적인(reactive)

4) 영적인 능력이 있는(reflective) --- 영적인 능력이 없는(unreflective)
마르틴 부버 <나와 너>
cf. 골고더의 두 강도

cf. Larry King

• 모든 사람과 다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

6. 인간의 인식 작용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 — 사전적 정의/ 의미상의 정의

1) 특징: 주관적/ 능동적/ 정의적

2)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감각 기관의 능력/ 위치/ 심리적 상태/ 언어 etc.

cf. 카톨릭 신학생들의 소풍

• 두 가지 교훈 --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일 뿐 아니라
축복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다.

7. 자신의 위상 확인

1) Zohari Window

두 가지 확인된 과제 — 자기 표현과 타인 인식

2) Life Position

Win & Lose	Win & Win
Lose & Lose	Lose & Win

cf.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의존성-독립성(개인의 승리) : 1. 주도적이 되라.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3.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독립성→상호 의존성(대인 관계의 승리): 4.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

6. 시너지를 활용하라.

7. 심신을 단련하라

cf. 한비야, <바람의 딸, 지구 겹어서 세 바뀌면>: 담당함과 겸손

8. 다섯 가지 협상 방법

1) 무시(Disconfirmation)

2) 폐쇄적 고정관념(Closed Stereotype)

3) 폐쇄적 민감성(Closed Sensitivity)

4) 열린 고정관념(Open Stereotype)

5) 열린 민감성(Open Sensitivity)

폐쇄적 고정관념 Closed Stereotype	폐쇄적 민감성 Closed Sensitivity
열린 고정관념 Open Stereotype	열린 민감성 Open Sensitivity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 기존 교계를 뒤엎을만한 민주화를 시험하는 교회-

교회와 민주화-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한국의 초대 교회의 힘이 컸다. 서양의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민주주의도 심어주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열강의 세력이 미친 영향도 크다.

그 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교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교회는 과연 민주주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참아 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본주의라는 이론적인 설명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은 적잖아도 옳고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만이 복음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최선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회가 민주주의를 세속적인 가치나 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총회, 노회, 당회, 그리고 공동의회, 제직회 등 교회의 기구와 조직들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현 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그 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 법정에 들고 가

는 교회 헌법 등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지키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방식이 교회 내에 잘 반영되어진 의사결정 구조는 공동의회일 것이다. 전체 교인 총회에 해당하는 이 회의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교인 총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활발한 토론이 불가능하다. 결국 교인 총회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큰 교회가 편법으로 공동의회를 운영하자, 작은 교회들도 이를 유명무실하게 이용하고 말았다.

그 다음의 의사결정 구조가 당회다. 그러나 당회는 그 회원들의 직분이 교회 내에서 계급화하였고, 70세 정도까지로 반 종신제가 되면서 장기간 소수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교회의 당회는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교회 내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론으로 제직회라는 것이 있다. 월, 격월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제직회는 교회 직분자들의 총회나 마찬가지로, 제직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회의 예산 감독이다. 그러나 당회원들이 제직회를 장악하여 통관 의례화 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이 생략된 형식적인 과정으로 전락하고

는 게 현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로운
문화정이 보장된 제직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과 결산 자료만 해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제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결국 교회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기능을 구현할
능은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의 자의
타의와 무관심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층의 외
으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들은 사회의 민주화, 투명
다 등에 맞춰 교회내의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하
고 있다. 부천 예인교회가 좋은 사례다.

예인교회는 2001년 7월21일부터 교단 헌법과
다르게 교인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본의 2 찬성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회의의 규약이나 운영위원 선출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서 선출된 7명의 운영위원이 담임목사와
개 8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교회의 당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의 위원들은 대
분 각 팀의 책임도 맡게 되어 실질적으로 기관
표자 회의까지도 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관 대표자를 동식시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

중요한 것은 담임목사가 의결권이 없다는 사실
다. 발언권만 있다. 이는 철저하게 평신도들을
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배려다. 한국 교회는 담
목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
회의의 담임목사는 교회 운영은 운영위원회에 맡
고, 교회를 대표하면서 실교와 목양에만 전념
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참여를
진시키고 있다.

의결과 집행을 다 수행하지만, 당회와 같이 임기
가 종신직이 아니어서 그 폐단을 줄일 수가 있
다. 예인교회의 운영위원회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역에 대해 1년마다 평가를
함으로써 많은 비효율을 줄이고 민주주의 정신을
정착시키고 있다.

예인교회의 시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투표
에 의해 결정된 초대 운영위원회는 청년 한명과
여성 두 명이 참여되는 등 구성 면에서도 혁신을
이루었다. 그리고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여성 한
명만이 선출되었다. 이것은 모두 교인총회에서
자유로운 추천과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문제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교단 어른들이 알면 큰일이 날 혁
명적 시도다.

오늘날 교회내의 비민주화는 교회의 성장과 발
전을 막을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평신도 계층을 무력화하고 있다.

교회는 그 규모에 앞서 건강해야 한다. 목회자
와 평신도가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이룸으로써 건
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자면 기왕에 도입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잘 살려 평신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줘야 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방식이라고 반드시 비
성경적일 수는 없다. 헌법에 나와 있는 방식이
최선일 수도 없다. 현재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야 할 것
이다.

예인교회의 사례는 교회의 민주화는 목회자가
먼저 나서야 함을 일깨워준다.

(이의용, 세상은 이런 교회도 있다, 2004).

예인교회의 교인총회는 '작은 축제'

-평신도 중심 운영위원... 건물 안 갖는 교회 유지 방침-

7월 21일 주일 예인교회(정성규 목사)에서 열린
교인총회는 작은 축제였다. 교인총회가 축제가
될 터이 있겠는가 싶지만, 분명히 작은 축제였다.
한 시간 조금 남게 모두들 웃고 박수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행복해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세운 지 2개월 이남 총회는 '사람이 제
맘대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첫 번째 실험무대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결정됐
다. 하나는 교회규약 제정이고, 하나는 운영위원
선출이다. 이 두 가지 결정사항 안에는 한국교회
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
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예인교회 규약에서 눈에 띄는 점들을 보
자. 매년 1월에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정기총회를
연다. 여기서 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예·결산
및 부흥산 소수·관리·처분 등 재정문제를 결정
하고, 규약 개정·운영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
이 부분은 보통 교회에서 연말에 열리는 공동의
회와 형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점은

총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여는 교회의 당회 내지 제직회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나 예인교회 운영위원회는 상당히 다르다.
첫째는 7인 이내의 평신도와 1명의 담임목사가
참여한다. 평신도의 임기는 1년이고, 해마다 정기
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아야 한다.

담임목사는 종신직이다. 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생
각을 관철시킬 수 있는 8분의 1의 결정권도 없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홍순호 권사는 "처음 정성규
목사님이 먼저 '목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
자'고 했을 때 다들 놀랐다. '그레도 8분의 1 정도
의 의결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지
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담임목
사의 역지가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어
지라면 부리면 부릴수록 교회는 행복해질 것 같
다.

둘째, 이날 선출된 일곱 명의 운영위원 중 여
(4)집사가 두 명이다. 투표를 하기 전 '누군기가'
이왕 개혁할 거 여성이 더 많으면 좋겠다'면서 두
명의 여 권사를 후보로 더 추천했다. 본인들이 "
운영위원 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면서 즐겁게 고사한 것이다. 사회
자가 "여성이 두 명이나 참여하는 것도 파격인데
더 늘리자면 이거 혁명이다"고 하는 눈에도 모

들을 즐겨워했다. 이 정도면 축제라고 봐도 충분
치 않은가.

예인교회는 담임목사의 교인 성추행 문제로 1년
상 몸살을 앓았던 부친 신도시의 초교회 교인
이 나와서 만든 교회다. 이들은 그 동안 참사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담임목사에게 자선
질문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요구
했다. 사건은 사회법정과 교회법정으로 남겨졌
다. 최근 당시자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결됐다. 하지만 담임목사에게서 어떠한 참회의
습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이 교회를
전히 떠나 2개월 전에 예인교회를 새로 만들었

그 동안 이들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우리
이런 아픔을 겪어 싶었는데, 알고 보니 수많은
회에서 교인들이 비슷한 고통 속에 빠져 있었
그들의 사정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얘기는
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인공의
간을 잘 견뎌낸 이들은, 정말 교회사 교회를
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

송내에 있는 문화센터 한 권을 장기 임대해 예
체소로 쓰고 있는 이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 하루만을 위해 쓰여 지는 예배당은 갖지 않
다는 방침이다. 건물 짓고 유지하는데 드는 돈
로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제대로 쓰겠다는
이다.

성서구 묵시는 담임목사를 비롯해 직분자 임기
를 도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직 교인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어서
이 시간을 갖고 치듬차츰 이해를 구해나갈 생

1971년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기가나 세어 0001110

넘기지 않고 교회를 분립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
다.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교회를 분립해
서 세우고 힘을 합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이런 구상이 아직은 시
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잠재력과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그는
"예인교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혁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
그 동안의 시련을 잘 감내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숙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교회를 설립하기 전까지 매주 기도회를 가져왔다.
정 묵시는 그 사이 '교회론'을 꾸준히 가르쳤다.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으
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교회

생활의 허구들이 하나씩 깨져나갔다. 또 내면의
상처를 씻겨내기 위한 프로그램도 가졌고, 상처
받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끌어안고 기도하며 섬겨
야 하는지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성숙의 계단을 한 칸 두 칸 올라
가는 것이다.

이날 총회가 끝난 뒤부터는 '예인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속기도회'가 시작된다. 여섯 장짜
리 안내지에는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이 빼곡이 채
워져 있다. 이 기도제목들을 찬찬히 읽고 기도해
나가는 동안 곧 속처럼 알차게 여물어갈 것이다

김종희(뉴스앤조이 2002-07-21 오후 7:29:59)